‘김제 수류성당지’ 전북도 문화재 지정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 통과… 4대종교 성지 지정 전국 최초 · 유일

김제시는 지난 2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김제 수류성당지가 최종심의에 통과되어 문화재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제시, 특히 금산면지역은 불교와 미륵신앙의 성지 금산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근현대 신생종교이자 민족종교로, 특히 호남권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증산교의 성지인 증산법종교 본부가 국가등록문화재이다.

또한 초기 개신교의 성지로 ‘ㄱ’자 교회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있는 금산교회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

이에 100여년이 훨씬 지난 호남 천주교정착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있는 수류성당이 이번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이 확정되어, 하나의 면단위(금산면)에서 4대종교의 성지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전국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를 남겼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아도 유일한 사례로 추정됨에 따라 향후 전라북도 역사·문화·관광분야에 우리나라의 종교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핵심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매우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류성당은 교우촌과 더불어 10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적지로, 한국전쟁당시 호남권의 천주교 기록물을 옹기에 담아 땅속에 묻어 온전히 보존했던 공간이자, 인민군에 의해 신도들이 학살되었던 가슴아픈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기에, 수많은 천주교인들과 지역민들은 이번 문화재 지정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김제 수류성당지가 최종심의에 통과되어 문화재지정이 확정됐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는 한국의 정신문화사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본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이번 수류성당지의 문화재 지정으로 4대종교의 성지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전국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를 만들어 전라북도민과 김제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 · 문화 향휴 기회 제공

정읍 실버작은도서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정읍시 실버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실버작은도서관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현직 동화작가와 전문강사의 지도를 받아 어르신들이 글과 그림을 직접 창작해 그림책을 만든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살아온 흔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냄으로써 어르신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11월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그림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형극을 제작해 발표하는 공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의 주민, 예술가, 문화예술기관 간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 문화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문화 환경과 인문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읍시 실버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 활동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문화재단, 신진예술가 발굴 · 육성 집중

20일까지 지원사업 공모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총 18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진예술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예술가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전 장르다.

2021년도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단독(개인)발표회 경험이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음발표지원’이며, 두 번째는 데뷔 이후 활발히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유망작품지원’이다.

올해 들어 새롭게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 첫째, 창작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시장, 공연장 등 공간을 지원한다. 둘째, 전주에 거주하는 청년예술가뿐만 아니라 전주를 연고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혔다. 셋째, 문학 분야가 신설됐으며, 특히 ‘처음발표지원’ 유형에서는 미등단 신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술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넷째, 그간 ‘데뷔작품지원’, ‘유망작품지원’, ‘점프컨설팅지원’, 3개 유형으로 운영돼 왔으나 ‘처음발표지원’과 ‘유망작품지원’으로 유형의 수를 줄이는 대신 단계별 청년예술가 발굴·육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20년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2021년 2월 24일 개최한 청년예술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김정경 팀장(문예진흥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예술현장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촘촘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며 “청년예술가들이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참여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www.jjcf.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jcf_run@naver.com)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70-7711-3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위한 평생도 교육상자 체험공간 마련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어린이박물관 내에 평생도 교육상자 체험공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평생도는 조선시대 사대부가 일생동안 겪을 수 있는 평생의례와 관직생활을 표현한 그림으로 선비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그림이다.

평생도 교육상자는 어린이가 화면을 터치하며 평생도를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도상자’와 그림 속 인물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의복상자’ 및 ‘물건상자’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평생도상자는 돌잔치, 혼례, 삼일유가 등 8폭 병풍을 디지털기기로 재현해 놓은 것으로 어린이가 화면을 만지면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의복상자는 평생도 속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체험할 수 있다. 물건상자는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물자료를 담고 있어서 어린이가 디지털 상자로 배운 그림 속 물건들을 상자에서 찾아내 관찰할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누리집 사전예약제 및 현장접수로 운영된다. 1일 3회, 회차 당 보호자 포함 55명이 관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총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유관기관 연계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가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직장문화 확산 필요에 따라 지난해 공모사업 실시 이후 올해 운영 기관을 재선정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친화 인증 확산에 초점을 맞춘 인증 전 준비 컨설팅 지원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족친화 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2020년 기준 120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 시 혜택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제공 등의 110여 가지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전북도의 경우 가족친화 인증 중소기업 대상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우대(가점 1점 이내),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산정보증요율 0.2%), 선도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1점) 등이 지원된다.

센터는 오는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컨설팅 희망 기관과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윤애 센터장은 “예전과 달리 직원의 행복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과 정시퇴근 등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에 대한 전북지역 내 기업문화 환경은 중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친화 유관기관 공모사업 참여로 지역 내 기업, 기관경쟁력 확보는 물론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올해는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인증 준비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내 관심있는 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bwc.re.kr)나 취업지원팀(063-254-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